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스승의 주일

오늘 주일(5.12)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특 송 : 한승훈 목사, 임명순 사모

박제연 집사(어린이 교육부장) 이광근 안수집사(어린이 교사)
임명숙 집사(청소년 교육부장) 임명자 집사(청년 교육부장)

3. 성령강림주일 주일

다음 주일(5.19)은 성령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4. 구역예배 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장소는 5월 16일(목) 정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5. 전교인 전도 / 슬러시 기계 사용

매주 금요일 오후 3-6시에 전교인 전도가 교회 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슬러시 기계 자율적인 사용은 매주 주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6. 2024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23 ~ 3.24)

5/18(토)-임명자 집사(-4.11) 5/25(토)-김선국 형제 5/27(일)-문재효 형제

5/27(일)-김아람 어린이

행사 계획

날짜	행사 내용
05/12	스승의 주일
05/19	성령강림절 (교회총력전도주간)
05/21	교역자기도회(사랑이창안교회)
05/26	삼위일체주일 / 성결교회주일
06/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6/02	농어촌 선교주일
06/06	산상기도회 (한국순교자박물관)
06/09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06/16	특수전도주일 / 통일비전기도회
06/23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
06/30	선교헌신예배 (모로코)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 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부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췌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5/12 이광근 안수집사
- 05/19 임명자 집사
- 05/26 임명숙 집사
- 06/02 김혜숙 권사
- 06/09 정애자 권사
- 06/16 이가을 권찰
- 06/23 박제연 집사
- 06/30 이광근 안수집사
- 07/07 임명자 집사



주사랑 7권 19호
창립 2017.11.25

2024년 5월 12일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 스승의 주일

2024년 표어 (행 9:31)
성령과 동행으로 평안과 부흥 누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은혜와 진리의 말씀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은사공동체
섬기고 전하는 사랑공동체



사제동행 청출어람

주사랑교회 사명서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한승훈 목사 (010-4724-3562)
- 교육간사: 임명순 사모 (010-8177-0617)
- 찬양운동: 아하바
- 피아노: 임명순 한은총
- 드럼: 한희락 한태민
- 예배영상: 한성결
- 대표기도: 이광근 안수집사(다움주: 임명자 집사)
- 헌금위원: 한희락 학생 (다움주: 이재우 아나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618,
3층 301호 (세류3동, 성원(삼가))
Tel. 031) 234-1691
Fax. 070) 4015-1691
0504) 472-3562
<https://jusarang.org>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 2024-19주 / 사무엘상 29 ~ 사무엘하 3장

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일으키실 때, 다윗에게 무죄한 자의 피와 동족 이스라엘의 피와 기름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의 피를 다윗의 손에 묻히지 않도록 취하신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방법은? (삼상 29:6~7)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 하나라

②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에 임의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작은 시련은 무엇입니까?(삼상 30:1~2)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 이미 네겔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③ 다윗이 시글락의 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방법은? (삼상 30:6, 8)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

④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는?(삼상 31:3~6)

사울이 ()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삼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을 뽑아서 그 위에 ()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

⑤ 다윗의 숙적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취했나요? (삼하 1:11~12)

이에 다윗이 ()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 하나라

⑥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통해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거짓말을 했던 미디안 출신의 청년이 결말은 무엇인가요? (삼하 1:14~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향기로운 삶 : 아이들의 가능성과 부모의 기도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축복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6)

충청남도 강경에는 강경여자고등학교(現, 강경고)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가 은퇴하신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고령의 선생님은 노년에 몸도 안 좋고, 약도 잘 듣지 않고, 병석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간에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들며 정성껏 보살폈고, 이 일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고 돕는 운동을 하며 “은사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여 섬겼습니다.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반향이 일으켰으며, 1982년 대한민국 정부는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선생님들의 노고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스승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해적들에게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인질 한 사람의 몸값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에서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는 선생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시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모든 분야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선생님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조차도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요, 스승님은 나를 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선생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삶과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